

‘한국 스포츠계 코치들 폭력 만연’

외신 ‘심석희 성폭행’ 보도… 문체부, 성폭력 징계자 체육단체 종사 불가 등 비위 근절 대책 발표

소프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스포츠계에는 코치들의 폭력이 만연하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9일 일제히 보도했다.

AFP는 9일 심 선수의 성폭행 주장을 전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스포츠 코치들은 선수들의 경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선수들에 대한 코치들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개적인 탄압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UPI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도 “한국의 올림픽 2관왕이 성폭력 혐의로 자신의 전 코치를 고소했다.”며 심 선수의 사건을 보도했다.

UPI는 “과거 조재범 코치는 선수들에 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국가 대표 팀에서 퇴출당했다.”며

“이후 중국 소프트랙 대표팀에 합류하려 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 선수는 지난 12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대표팀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의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3월까지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빙판길 조심 전국적으로 영하권 날씨를 보인 9일 전주시의 온도가 최저기온 영하 7도를 기록하며 전주 한옥마을의 도로 일부에 빙판이 생성되어 있다.

빙상연맹 “심석희 성폭행 고소 당혹스럽다”

소프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 관계자는 9일 “이런 일(성폭행 관련)이 있을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럽고 어렵다.”고 말했다.

심석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일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가 알려진 뒤 연맹은 이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빙상계 폭력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폭행에 더해 성폭행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대

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의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맹 관계자는 “관리위원회에서 대책 마련 논의와 함께 문화체육부의 대책을 어떻게 체육회와 공조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할 수 사 상황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4일 관리위원회를 열고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강석훈 기자

융복합 콘텐츠 산업 키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VR 등 인프라 조성 집중

전주시가 가상·증강현실(VR·AR)과 실감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사업에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상, 이하 진흥원)은 올해 전북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원천스토리 발굴, 인력양성, 마케팅까지 원스톱지원 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기술기반 융복합 콘텐츠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진흥원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융복합 콘텐츠 제작(2억 8100만원)’과 ‘기업홍보 및 마케팅 참가(77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 신기술기반 콘텐츠제작지원과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각각 2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으로 3개 과제를 선정, 총 8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주지역 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 국내 전시공통관 참가지원으로 6개사 총 3000만원을 지원하며,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4개사 총 4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뉴콘텐츠 제

작지원사업을 통해 전주문화유산 교육용 VR콘텐츠인 ‘박스퍼즐’과 태조어진 봉안행렬 VR콘텐츠 등 총 5건의 뉴콘텐츠를 발굴한 바 있다.

J-스토리랩 운영을 통해 발굴한 우수 스토리 △감정미러 △게으른 아들의 팔죽 분투기 △장승백이 강사포 등 3건은 다음과 네이버에서 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4135)로 문의하면 되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진흥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호철 기자

경찰관 목설·폭행 50대 검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설과 폭행을 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피의자 A모씨(50)가 지난 8일 오후 9시경 김제시내에서 “목을 하고 때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 등 2명이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목설을 하고 A경위의 종이를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석훈 기자

자동차 대신 ‘자전거’

전주시 ‘청원 자전거 출퇴근 운동’ 전개

전주시 공무원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했다. 시는 생활 속 자전거타기를 공무원부터 솔선하도록 올해도 ‘청원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속 공무원 170여명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중 50여명의 직원들은 거의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솔선해 녹색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실천함으로써 단거리 이용에 최적인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시키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직장 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출퇴근 상황을 체크하고, 서로 자전거 관련 정보를 나누면서 다른 동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기로 했다.

시는 더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 출

퇴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전거 출퇴근수에 따른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는 자전거 행진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보수·확충에도 매진기로 했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불법 주·정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전거”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날 무시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입건

자기를 무시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A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B모씨(66)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들어 메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택시를 탔

는데 운전기사가 욕을 해서 화가 났다.”며 “술을 많이 마셨다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혐의가 명백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트윈세대’ 전용공간 조성

전주시, BTS(Be Tween Space) 조성 지원사업 선정

건립 중 전주 중화산도서관서 8~14세 연령대 대상

건립중인 전주(가칭)중화산도서관에 8세부터 14세까지의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책임사회문화재단,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이 공동 출연한 자선단체, 도서관재단 씨앗 등 3개 민간단체가 협력해 공모한 BTS(Be Tween Space) 조성 지원사업에 중화산도서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BTS(Be Tween Space)사업은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트윈세대(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낀 8세~14세 아이들)를 위한 전용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화산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트윈세대를 위한 인테리어 △청소년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콘텐츠에 따라 필요한 기기와 운영 기획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김양원 전주시장과 안찬수 책임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태운 도서관재단 씨앗 상임이사, 엄윤

미 C PROGRAM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위한 회의를 열고 Be Tween Space 조성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양원 전주시장은 이날 “청의도서관으로 조성중인 중화산도서관에 책놀이 중심의 7세 이하 어린이와 진학을 위한 청소년 사이에 낀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이 생긴다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동등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서관이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화산도서관은 총사업비 103억원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부지면적 3,397㎡ 연면적 4,042㎡ 지하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창의형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개방형 자료실 △다목적 강당 △트윈세대 전용공간 등을 갖춘 전주시 대표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호철 기자

내달 20일부터 ‘한자·문화캠프’ 개최

2박3일동안 전주한옥마을서 시, 초등 4~6학년 대상 모집

하게 되며 완산청소년문화의집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이번 캠프에 참여했다.

전주시가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캠프를 연다.

시는 오는 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서당식 전통교육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전통문화캠프 프로그램인 전주 한자·문화캠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한자·문화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방학 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 고택에서 부모와 떨어져 친구들과 합숙

시에 참가할 초등학교 4~6학년 32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7만원이다. 캠프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메일(geniil404@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063-281-5268)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난 10년간 캠프를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캠프는 한국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전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주거복지 맞춤형 교육

전주시는 지난 8일 덕진지역지원센터에서 자립입문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맞춤형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파견,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공공임대주택 △이사비 지원사업 △주택금융지원사업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했다.

교육에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주거복지 활동가와 주거복지와 전문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자립주민 대상으로 △전주시 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 △H연계

공공임대주택 수시신청 제도 △민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시는 이날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한국주거복지 사회협동조합 임·직원 대상으로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임재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이 서비스는 시민에게 주거복지 사업을 전달하는 홍보 효과와 더불어, 현장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추진

내달 8일까지 14만921필지 대상

가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게 된다. 이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전주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완산구 6만 6623필지와 덕진구 7만4298필지 등 약 14만921필지로, 전주시 전체 토지(19만 3071필지)의 73%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의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일 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결정·공시일인 오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